

2005年度

碩士學位 請求論文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EDUCATIONAL THOUGHTS
OF LUTHER AND CALVIN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장현주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EDUCATIONAL THOUGHTS
OF LUTHER AND CALVIN

지도교수 이 은 규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1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장 현 주

이 논문을 장현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정함.

2005년 12월 1일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A COMPARATIVE STUDY
OF THE EDUCATIONAL THOUGHTS
OF LUTHER AND CALVIN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Anyang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MASTER OF DIVINITY

by

HYUN JOO JANG

December 2005

목 차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 2 장. 본 론	6
제 1 절. 종교개혁 시대의 사상적 배경	6
1. 종교개혁의 배경	6
2. 종교개혁의 교육적 상황	8
제 2 절. 교육가로서 루터에 대한 이해	9
1. 루터의 생애와 교육배경	9
2. 루터의 교육 실제	13
3. 루터의 교육 공헌	19
제 3 절. 교육가로서 칼빈에 대한 이해	22
1. 칼빈의 생애와 교육배경	23
2. 칼빈의 교육 실제	27
3. 칼빈의 교육 영향	37

제 4 절. 루터와 칼빈의 교육 사상 비교	39
1. 루터와 칼빈의 교육 사상	39
1) 루터의 교육사상	39
2) 칼빈의 교육사상	42
2. 루터와 칼빈의 교육 사상 비교	45
1) 교육 목적	45
2) 교육 내용	48
3) 교육 방법	52
4) 교육 실천	55
제 3 장. 결 론	59
참고문헌	6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회는 복음을 언제나 새로운 사회와 인간을 이해시키고 시대적 삶의 표현 형식들로 해석하였는데,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교육이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언제나 선포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¹⁾ 따라서 교육과 기독교 신앙은 역사 속에서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의 필수적인 내적 요소이다. 셰릴(Lewis J. Sherrill)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의 기독교가 그 때, 그 곳에서 교회가 행한 실제 교육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이런 역동적인 교회 역사관점에서 기독교 교육은 다양한 형태를 띠어왔다. 처음에는 교육이 기독교인의 신앙고백, 즉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고백하는 신앙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세례신조에 근거한 교리문답 교육으로 변천해 왔다.²⁾ 그러나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삶과 문화의 다른 측면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그 지배력을 상실해 갔고 바로 이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 운동으로 인해 종교, 교육, 제도 전반적인 분야까지 변혁의 영향을 미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종교 개혁자들의 교육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 앞선 주도를 해 나갔다. 문화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학교, 가정,

1) 오인탁, “한국 교회 100년의 종교 교육” 「기독교 교육론」 (서울: 대한 기독교교육협회, 1991), pp.15-16.

2)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pp.12-13.

사회 등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독교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대표인 루터와 칼빈의 신학적 입장으로 현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교육 사상을 연구하고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교회 교육의 적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목적을 위해 문헌 연구의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루터와 칼빈은 종교 개혁자, 신학자로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교육가적인 측면에서는 연구가 부진하여 한계가 있었지만 필자는 루터와 칼빈의 여러 종류의 문헌과 잡지, 선행 연구 보고서 등에 있는 문헌들 중에서 교육적인 면을 조사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제 1 절에서는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로 알려진 루터와 칼빈의 공통적인 종교개혁의 배경과 교육적 상황을 살펴보고 제 2 절과 제 3 절에서는 개혁주의자로 많이 알려진 루터와 칼빈의 교육가적 측면을 보기 위해 전체적인 숲에 해당하는 루터와 칼빈의 생애를 이해함으로 그의 교육 배경을 살펴보고 그들의 교육 실제와 공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절에서는 나무를 보기 위한 연구로 루터와 칼빈의 교육 사상을 먼저 살펴 본 후, 유사점과 차이점을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실천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교회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였다.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종교개혁 시대의 사상적 배경

1. 종교개혁의 배경

종교개혁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대전환기였다.

첫째로 15세기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위대한 변화의 사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1492년 콜럼부스에 의한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을 출발점으로 들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고와 상징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젤란은 1519년 세계일주 항해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지리적 발견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태우게 되었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는 욕망을 갖게 했다.

둘째, 15세기가 끝나가고 16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또 다른 획기적인 변화는 정치적 현상으로 중세기의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근세 국가의 탄생을 지적할 수 있다. 각 나라의 민족적 갈등은 결과적으로 교황지배의 기독교 왕국을 무너뜨리게 하였다.³⁾

셋째, 경제적인 불만이 개혁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시기에 사회와 종교생활의 양상은 교회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좌우되고 있었다.⁴⁾

넷째, 중세부터 시대를 따라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외치며 실천하려는 개인들과 그룹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이나 실천은 거대한 교황주의 교회 조직의 한 구석에서 추진되는 듯 하다 교계

3) Justo L. C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3. 기독교 사상사(III), 이형기, 차중순 역(예장총회 출판국), pp. 26-28

4) 장종철, 「기독교 교육 역사」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판부, 1993), pp.245-246.

주의 체제에 부딪혀 좌초되고 시들기를 거듭하며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한 편 세속의 제왕과 우위권을 다투는가 하면 하나로 얽혀 존속해 온 교황을 정점으로 하여 오랫동안 유럽인들의 정신과 문화를 지배해 온 교황주의 교회 체제는 실로 막강했다. 이러한 막강한 교회의 체제가 16세기에 와서 일개 수도사의 항의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맞았다. 서방 세계를 지배해 온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일성이 붕괴된 것이다.

교황주의 교회에 도전하거나 위협이 되는 사상이나 운동에 대해 종교 재판으로 다스리던 교황주의 교회는 16세기의 종교 개혁 운동 역시 이단으로 정죄함으로써 억압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 운동이 좌초되거나 국부적인 운동에 그치지 않고 온 유럽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로마 교회와 유럽의 교구를 분할하여 자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처한 시대적 환경이 이전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의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교황주의 교회의 부패지수가 극에 달했을 뿐 아니라 대학들의 설립과 교육을 통하여 지성인들의 수가 늘어났으며 봉건 제도의 붕괴와 상공업의 발달로 중산층이 많이 생겨났다.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사상이 일어나 교황주의 교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확산되고 고양되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더는 교회가 문화를 지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있었다. 지리상의 발견으로 사람들은 지구상에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과 동경을 가짐으로써 더 폭넓은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인쇄술의 발달로 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신속히 전달되고 지식이 예전보다 보편화 되었다. 이와 같이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교황청과 로마 교회의 지지자들은 단순히 교권과 무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개혁 운동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종교 개혁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표현이 종교 개혁 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추수할 일꾼들을 위한 곡식처럼 개혁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종교 개혁 신앙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의 값을 치렀다. 독일은 더 유리한 입지에 있었으나 독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반종교 개혁 운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종교 개혁 신앙을 택하고 지켜 나갔다. 그것은 종교 개혁이 단순히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고 도덕적인 갱신을 시도한 것만이 아니고 기독교 본래의 신앙을 흐리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즉 구원을 확신케 하는 기독교 본래의 신앙을 가질 것을 새롭게 강조하였기 때문이다.⁵⁾

2. 종교개혁의 교육적 상황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간의 추이를 내다 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인문주의자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였다. 그의 나이 50세가 되던 1516년 그는 온 유럽의 중재자이자 대륙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학자였다.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도 로마교회의 월권행위에 대항하는 그의 여러 풍자적인 작품들뿐만이 아니라 인문주의자의 신약성서 번역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루터교와 카톨릭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당시 거의 모든 교육은 국가의 통제 아래 있었으며 따라서 그 수준은 아주 형편없었다. 대학, 시민학교 그리고 중세 기사들을 위한 교육의 단일 통제 제도는 루터가 ‘두 개의 검 이론’을 개발함으로써 도전했던 문제 즉 모든 학교가 교회에 예속된 형편이었다. 물론 그 결과는 젊은이들의 도덕발달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보았다.⁶⁾

5)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4), pp.381-383.

제 2 절. 교육가로서 루터에 대한 이해

이러한 시대에 등장한 마틴 루터는 교육학자 혹은 기독교 교육학자이기 이전에 신학자이며 목사였다. 그는 신학자와 목사로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유럽 전역에 본격적인 종교 개혁의 불길을 번지게 한 자이다. 따라서 루터의 이름은 종교 개혁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고 그의 교육 사상도 일차적으로 종교 개혁 운동과의 연결선상에서 보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루터가 교육에 관심을 돌리게 된 배경도 교육 자체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관계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종교 개혁을 통한 사회 개혁을 시도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인 저술을 쓰게 되었으며 학교 개혁에도 관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교육 사상은 그의 신학적 관심과 그의 종교 개혁적 입지와 깊은 내적인 관련성 안에 놓여 있고 이러한 관련성 안에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⁷⁾

1. 루터의 생애와 교육 배경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작센 주의 아이스레벤에서 광부인 아버지 한스와 어머니 마가레테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이듬해에 루터의 가족은 만스펠트로 이사를 하였고 그 곳에서 루터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초등 교육을 받게 된다. 그의 가정은 중세 대부분의

6) 케니스 O. 갠글/워렌 S. 벤슨 공저, 유재덕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p. 147-148.

7)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기독교 교육 논총(1)/학술연구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pp.97-98.

다른 가정들처럼 분위가 엄격하고 경건했다.

루터는 탁상담화(Tischreden)⁸⁾에서 그의 어머니가 호도 한 알을 훔쳤다고 피가 흐를 때까지 매질했다는 것, 그리고 한번은 아버지가 너무 많이 때려서 “아버지가 다시 나를 받아 주실까 근심했다”는 기록을 하였다. 이 기록 때문에 많은 이들은 루터가 특별히 엄격한 가정에서 그리고 부자간의 갈등이 많은 분위기에서 자라났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알란트(K. Aland)나 그 외 많은 루터 전기 연구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루터가 이것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그의 부모와 나누었던 사랑에 가득 찬 편지들이나 부모에 대한 그의 다른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았을 때 루터는 사랑이 있는 평범하고 엄격한 중세적 가정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다.⁹⁾

그리고 루터는 마그데부르크와 아이슬레벤에서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1501년 초에 에르푸르트로 가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¹⁰⁾ 거기서 그는 학제에 따라 우선 문학부 수업을 받게 된다. 당시 대학의 학제는 대학에 들어옴과 동시에 일단 고대부터 내려오던 칠자유과를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미 이때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정통으로 배웠고 또한 그의 비판에까지 사고를 확대하였다.

문학부의 단계를 마치고 루터는 연이어 이를 심화하는 단계를 마치고 수사학과 고전 등을 공부하고 1505년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¹¹⁾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성경 전권을 볼 수 있었다. 그 해 7

8) WA(Weimarer Ausgabe) TR(Tischreden)III, 415-416 Nr.3566.을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기독교 교육 논총(1)/학술연구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p.99.에서 재인용.

9) 쿠르트 알란트, “마틴 루터의 생애와 사상”, 휴 T. 커어 편저, 김영한 편역, 「루터신학 개요」, p.327.

10)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4), p.389.

11) H. Bornkamm, "Luther" Leben und Schriften, 「R. G. G」 Bd. 4, p. 480을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기독교 교육 논총(1)/학술연구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p.100에서 재인용.

월에 슈토터하임에서 벼락 사건을 경험한 루터는 몇 주간 강의해 오던 강사 자리도 마다하며 세상을 등지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음악과 철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음악박사’, ‘철학자’로 별명을 얻었었다. 이렇게 쾌활하고 적극적인 루터의 생애에 이 크고 갑작스런 변화는 친구와 가족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 동안 출세를 기대했던 아버지의 실망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런 급격한 생의 방향 전환은 비오는 어느 날 친구와 비를 피하려 나무 밑에 있다가 벼락으로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종교적 고민을 하게 되면서 생겨졌다.¹²⁾

보름 후에 그는 친구들과 하직하고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이듬해 가을에 루터는 마침내 엄격하게 생활하는 탁발교단의 회원이 되었으며 1507년 사제로 서품을 받았다. 잠을 적게 자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독서를 하는 등의 금욕적인 수도원 생활은 그에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것”이었으며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¹³⁾

이런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수도원 생활을 감당하면 할수록 루터의 내적인 고뇌는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과 벌을 받으면 받을수록 용서받았다는 생각보다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공의와 진노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게 되었다. 이러한 루터에게 하나의 전환점으로 ‘탐의 경험’으로 그의 종교 개혁적 인식이 싹트게 된다.¹⁴⁾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물리학을 강의하게 되었다. 1509년 성경학사가 되자 성경 강의도 맡게 되었으며 1512년 에르푸르트 대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성경교수가 되었다. 루터는 1515~1516년에 로마서를 강의했으며 1516~1517년

12)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5), p.268.

13)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4), p.389.

14) 쿠르트 알란트, op. cit., p. 334.

에는 갈라디아서를, 1517~1518년에 히브리서를 강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면죄부를 반대하는 항의문을 써서 발표하여 종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기 이전에 신학의 기초를 탄탄히 닦으며 개혁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추었다.¹⁵⁾

그가 부원장으로 있었던 수도원의 탑에 있는 무더운 연구실에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그 순간 그는 섬광과 같이 스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우리가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사건 즉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 위에 면죄부에 대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건 사건은 사실 루터의 ‘탑의 경험’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탑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1519년 7월의 라이프찌히 토론을 통해 신학적으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¹⁶⁾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16세기의 어떤 다른 종교 개혁자들보다도 루터가 교육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기록한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그는 교육에 관하여 소책자들, 설교, 요리문답, 주석, 서신 등을 출판하였다.¹⁷⁾

사실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1525년까지 루터의 활동은 로마교회로부터 개신교를 분리하기 위하여 로마교회와 개신교의 차이점에 역점을 두면서 주로 카톨릭에 대한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글들을 쓰는 일에 주력하였다. 1525년 이후의 시기에 루터는 투쟁적인 글 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새 교회의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제도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를 목적으로 하는 글들을 쓰게 되었다.¹⁸⁾

15)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서울: 이레서원, 2004), p.392.

16)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기독교 교육 논총(1)/학술연구지」(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pp.101-102.

17) 엘머 L. 타운즈 편저, 임영금 역, 「인물 중심의 종교교육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p.152.

18)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기독교 교육 논총(1)/학술연구지」(서울: 한국장로교출판

그의 전반적인 경력은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는 학교를 창설하고 새로운 교과 과정을 수립하였는데 자의 반, 환경에 의한 타의 반이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혁신시키는 그의 주요한 선교 사업은 본질적으로 교육 사업이었다. 다른 한편 교회의 세속화는 부수적으로 수도원의 몰락을 가져왔고 군주들과 도시들이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기본 재산을 몰수하게 되었고 이것은 여러 지방에서 성당학교와 수도원학교의 붕괴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좌익적인 종교집단들은 내적 계시의 중요성과 최소한도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기존 학교의 강화와 새로운 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루터의 교육 실제

중세기 유럽에서 교육은 교회와 교회 관련기관의 독차지였었다.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도 성직자 양성에 있었고 성직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일부 소수 귀족과 부유 시민 층의 자제들이 수도원 학교나 돛학교, 본산학교와 같은 교회기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 전부였고 중세 말에 대학이 생기면서 교회 지도자와 법관 의사들을 양성하였고 이를 통해 교회와 사회의 엘리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루터는 교육의 새로운 차원, 즉 엘리트 중심 교육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의 개념과 실천을 생각하였다. 이 생각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그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정, 학교, 교회 이렇게 셋으로 확대해서 보았다.

루터는 교육을 일차적으로 가정의 과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사, 1999), p.104.

교육적 과제를 잘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 과제를 국가와 통치자가 대신 하여 맡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⁹⁾ 그는 근대 교육자들 중에서 보통 교육과 의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종교교육의 기본적인 원칙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 불가결해졌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가 모두 훈련된 인원들을 필요로 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는 놀랄 만큼 폭넓은 교육을 모든 학교들을 위하여 제창하였다. 주로 읽기, 쓰기, 그리고 종교적인 공부에 치우쳤던 중세 말엽의 학교들이 교육 과정에 불만을 품고 그는 모국어 및 요리문답의 지식을 주입하고 나서 성서언어 및 다른 언어들, 문법, 수사학, 논리학, 문학, 역사, 음악, 수학, 체육,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 공부에까지 가르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고급학교건 하급학교건 주된 과목은 성경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1) 교육 과정

루터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관심은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성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과목은 성서가 되어야 하며 성서연구와 함께 루터가 강조한 것은 교리문답과 음악교육이었다. 왜냐하면 교리문답교육은 성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음악교육은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부드러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루터의 교육관에 있어서 다른 어떤 동기나 목적에 앞서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첫째가는 교재이며, 교육의 방편이다. 루터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신 그릇된 사상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는

19)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기독교 교육 논총(1)/학술연구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pp.137-140.

20) 엘머 L. 타운즈 편저, 임영금 역, 「인물 중심의 종교교육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pp.163-170.

그의 자녀들을 보내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성서를 무시하는 당시 고등학교를 비난하고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배우는 학습과정 이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신학적 기초훈련을 장려하였다 그래서 그는 소교리 문답서와 대교리 문답서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포함된 내용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었다. 또한 루터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음악교육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루터는 교양과목이라고 불리우는 인문주의의 학과목을 기독교의 교역자와 목사와 그 밖의 일반지도자들이 훈련을 받아야 할 바람직한 학과목이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인문주의 계통의 학과목으로서는 역사·음악·수학·문학·자연과학·의학·체조의 과목을 중학교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스미스에 따르면 루터는 다음의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의 총체적인 구조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믿었다.

- 초등학교 - 독일어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경공부, 음악, 역사, 수학, 자연, 체육교육을 가르쳐야 한다.
- 가정교육 - 상업이나 가정관리를 할 수 잇을 정도의 실제적인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 라틴어 중등학교 - 라틴어, 희랍어, 히브리어, 수사학, 역사, 수학, 과학, 논리학, 음악, 체육 등을 가르쳐야 한다.
- 대학교 - 신학, 법률, 음악, 의학, 성서 등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 21)

21) 장종철, 「기독교 교육 역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pp.263-264

2) 교육 방법

루터는 가르치는 직무에 대한 신분을 높였다. 또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권위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벤손은 루터의 교육방법에 대하여 4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루터는 훈육을 강조하였다. 철저한 순종은 온유함과 사랑으로 양육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당시의 학습이나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한 아동을 간혹 거의 죽음직전까지 구타했던 수도원학교의 혹독한 훈육 관습과는 대조적으로 루터는 이러한 철저한 순종은 온화함과 사랑으로 조율된다고 가르쳤다.²²⁾

둘째, 그는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상상력, 환상, 반복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루터 이전에는 형식, 문법 공부, 그리고 암송에 여전히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딱딱한 수련으로 일관되었으며 제멋대로 하는 아이들에게 위협으로서 처벌을 주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루터는 단순한 형식 보다는 내용을 강조하였고 부모들이나 교사들은 놀고 싶어 하고 토론, 논쟁, 연극을 통하여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의 욕망과 그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에 호소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²³⁾

셋째, 이해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넷째, 그는 학습은 흥미, 모방의 방법에 의한 강화, 그리고 추상적인 방법보다는 관찰의 방법을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2) 케니스 O. 갠글/위렌 S. 벤손 공저, 유재덕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152

23) 엘머 L. 타운즈 편저, 임영금 역, 「인물 중심의 종교교육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pp.171-172.

간결성과 반복은 루터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였다. 루터는 어린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다. 페인터에 의하면 루터는 소크라테스의 질문방법에 따라서 정신을 깨우쳐 주고 진리에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방법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²⁴⁾

루터의 교육은 일반 교육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기독교적 교육의 개념이었다. 이것은 교육 방법적인 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루터가 학습이 지루하고 딱딱하지 않게 놀이와 흥미를 통해서 동기 유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던 점도 인문주의적 저술 속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²⁵⁾

루터는 교육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찾았고 가정이 이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이를 대신해 주는 곳으로서 학교를 생각하였고 또 이 학교에 교회의 기독교 교육적 책임도 함께 수행하는 폭넓은 의미의 기독교 교육의 담당자 역할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교회는 교육의 과제와 밀접한 관련 안에 있다. 루터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루터에게 교회의 일차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이해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재는 척도를 루터는 천주교에서처럼 단순히 한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관건으로 삼지 않고 얼마나 개개인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며 이를 삶으로 실천하느냐를 관건으로 삼았다. 또 그의 만인제사장설에 입각하여 볼 때 모든 기독교인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은 루터 교회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먼저 언어의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바른 가

24) 장종철, 「기독교 교육 역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pp.265-266

25)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기독교 교육 논총(1)/학술연구지」(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p.147.

르침이 요청된다. 루터는 모든 평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 출판하였고 모든 교인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당시의 라틴어 미사에서 독일어 미사로 예배를 개혁하였으며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교리 문답서를 편찬하였다.

이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한 그의 교회 교육적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리문답식 설교를 고안하였다. 그는 청소년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한 질문도 하는 문답식 교리문답설교를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에 루터는 예배의 교육적 측면을 살린 교리문답식 설교를 성인에게도 확대하였다. 이 교리문답식 설교를 통해 그는 중요한 기독교의 신학적인 테마들과 성서의 내용들을 일 년 단위로 편성하여 매주 강단에서 가르쳤다. 그의 교리문답설교는 그가 실제로 행했던 설교내용의 모음이다. 루터의 교회교육은 말씀의 바른 이해와 해석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이 과제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의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주일에 목사와 교리문답식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가정에서는 모든 가장이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교리 문답서를 읽고 외우고 해석해 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에서도 성경과 교리문답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루터의 교리문답과 그에 대한 그의 기독교 교육적 사고는 당시의 인문주의적 사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루터의 독창적인 사고이다. 교리문답은 그의 기독교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서 그리고 방법으로서 그의 교육적 사고를 특징짓는 테마일 뿐 아니라 루터 이후의 17~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독일 종교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²⁶⁾

26)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기독교 교육 논총(1)/학술연구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

루터의 교리문답은 세 가지의 차원을 고려하였다.

첫째, 그는 성서적 전승을 중요시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기 쉽고 간결하게 요약해 줄 것이 필요한데 교리문답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교리문답과 삶의 관련성을 중요시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에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삶 속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가가의 전승의 내용들이 당시를 사는 기독교인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내용들을 당시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 비추어 그들의 경험에 연결시켜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하려 했고 기독교인의 하루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문과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삶의 표현들을 해설해 주고 있다. 세 번째는 신앙안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교리문답은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3. 루터의 교육 공헌

이상의 루터의 교육가적인 면을 보면서 페인터는 루터의 교육공헌에 대해 중요한 8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루터는 대중 학교를 시작했고 대학교육의 목적을 갖도록 하는 교육체계의 기초를 마련했다.

둘째, 그는 크리스천의 고상한 교육사상을 만들기 위하여 교수와 훈육을 통하여 모든 생활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직무를 수행해야

사, 1999), pp.144-147.

할 길을 마련하였다.

셋째, 그는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교사의 직무에 대한 권위와 가치를 강조했다.

넷째, 그는 부모들과 목사들과 시정 책임자들이 젊은이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다.

다섯째, 그는 학교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지도자였으며, 또한 학년별 수업을 실시하였고 발견된 연구의 과정과 합리적인 교수 방법을 소개하였다.

여섯째, 그는 어린이의 본성을 존중함으로써 교육학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일곱째, 그는 어린이의 능력에 따라 교수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키고 즐거운 학습법과 문답 기술을 통하여 정신을 깨닫게 하고 또한 낱말과 사물을 연구하고 사랑의 훈육을 하도록 하는데 개척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덟째, 그는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⁷⁾

이러한 루터의 교육개념은 인문주의로 시작되는 근대적 교육학과 일치하는 면과 상반되는 면의 양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세의 성직자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교육을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확대시켰으나 근대적 교육개념의 공통분모인 인간의 이성을 일종의 잠재능력과 같아 이것의 개발과 훈련이 인간의 개선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에는 일치하지 않았다.

루터의 신학적으로 볼 때 이성이 개발된 인간은 결코 선하게 된 존재도 아니고 완성된 존재도 아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교

27) 장종철, 「기독교 교육 역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pp.267-268

육의 중요성과 기능적 차원을 강조하였지만 교육을 통해 인간이 완성될 수 있다는 낙관론적 견해와는 분명한 거리를 두고 교육의 한계성을 분명히 하였다.

제 3 절. 교육가로서 칼빈에 대한 이해

존 칼빈의 저서는 『존 칼빈 : 신학자, 설교자, 교육자, 정치가』라는 제목의 필립 볼머의 책에서 적절히 표현된 것처럼 매우 광범위하다. 우선 그는 신학자로서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일꾼 중 한 사람이었다. 그가 쓴 『기독교 강요』는 신학자로서의 그의 면모를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래서 멜랑크톤은 칼빈을 유일한 신학자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찬사는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신학자로서만 유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교육자로서도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실제로 신학자로서의 그의 명성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그의 공헌이 종종 가려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칼빈의 저서와 목회의 중심은 언제나 교육에 있었다. 특별히 교리의 가르침에 집중해 있었던 그의 교육은 신학적 목적에 봉사하는 하나의 신학적 작업이었다. 따라서 칼빈의 목회 사역의 전체 틀 안에서 볼 때 신학과 교육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다. 교육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던 교회는 개혁 신학을 성실히 가르치는 하나의 학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칼빈의 저서가 지니는 교육적 중요성은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서 대체로 주목받지 못했다. 첫째, 역사적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칼빈의 종교개혁에 선행한다는 점과 아울러 개신교 학교의 발달에 있어서 멜랑크톤의 선구적 업적이 제네바보다는 독일에 관심을 집중시킨 탓 때문이고 둘째는 『기독교 강요』의 의심할 바 없는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는 철저한 신학자이자 신학적 논객으로서 사회적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실제적인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인물로 간주된 점이다. 셋째는 루터와 비교할 때 칼빈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쓴 교육학 논문이 전혀 부재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체는 이와 매우 다르다. 현대에 이르러 다시 부활하는 역사적 연구는 칼빈에 대한 초기 평가가 보여 준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복잡한 영역에 걸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²⁸⁾

1. 칼빈의 생애와 교육배경

루터에 의하여 시작된 종교 개혁은 칼빈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사상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루터보다 칼빈이 한 시대 늦게 태어난 것(1509년 7월 10일)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광부의 가정에 태어난 루터와는 대조적으로 칼빈은 귀족적 가정배경에서 자라났다.²⁹⁾

원래 그의 이름은 장코뱅으로 불리는 요한 칼비누스인데 그는 제랄코뱅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제랄은 뱃사람 또는 통을 만드는 가문의 아들이었으나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않고 다른 방면으로 출세할 희망을 가지고 노윤으로 갔다. 그는 두뇌가 예리하고 문필에 소질이 있었으며 비교적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강했다. 또한 근면과 노력을 생활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 결과 그는 노윤에서 성공적인 생활을 가지게 되었고 1500년 이전에 어떤 여관집 딸과 결혼했다. 그녀의 이름은 요안나 르푸랑이었다. 정숙하고 겸손하며 특히 중세기적인 경건한 그녀의 모습은 근방의 총각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그와 결혼하게 된 제랄을 주위의 사람들은 행복한 남자라고 했다. 제랄과 요안나의 성격은 대조적이었다. 제랄은 양심이 강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보겠다는 강한 성격의 주인공인데 대하여 요안나는 신앙에 쌓여 경건한 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 보려고 했다. 칼빈은 바로 이들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³⁰⁾

28)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pp.27-28.

29)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5), p.278.

칼빈은 아버지에게서 문필력과 예리하고 조직적인 두뇌를 물려받았으며 그의 어머니에게서는 중세기적인 경건한 신앙심을 배웠다. 칼빈의 가정은 노른에서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있었으며 부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칼빈의 아버지는 노른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501년부터 1525년까지 한 교구의 서기와 주교의 비서직을 맡고 있었다. 이 자리는 지방의 상류계급의 인사들이 주로 차지하는 자리 일만큼 좋은 자리였다. 이 덕분에 칼빈은 상류계급의 자녀들과 접촉할 수가 있었고 당시 로마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세상모르고 자라날 수가 있었다. 칼빈의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엄격했다. 특히 칼빈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³⁰⁾

루터의 아버지가 루터의 성직 투신을 극력 반대한 것과 대조적으로 칼빈의 아버지는 칼빈을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여 파리 대학으로 보냈다.³²⁾

그의 유년기 교육은 쾰른의 성장과정과 유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는 거의 6세쯤에 베젠에서 목사였던 그의 삼촌 바돌로메우스에게로 보내졌고 10세에 바젤의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였다. 칼빈은 노른에 있는 까쁘뜨 대학에서 라틴어 수업을 받았다. 쾰른과 마찬가지로 칼빈은 14세에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귀족 몬트모의 아들과 함께 그들의 가정교사의 지도하에 칼빈은 파리에서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파리에서의 수업을 위해 관심을 기울였고 그의 아들에게 1521년에 그가 노른의 성당에서 청소년 사역에 종사하여 얻은 부사제직의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성직록을 부여하였다. 1527년 칼빈은 이런 방식으로 마르테빌의 목사로 세워졌고 1529년에는 폴레백의

30)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p.10.

31) 이장직 외 10,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pp.29-30.

32)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5), p.278

목사가 되었다. 이런 성직록에 대하여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는 파리에서 우선 라 마르세 대학에 다녔다. 당시 14세 학생으로 평범한 학생에 불과하였으나 당시 대학 수업은 7가지의 자유 문예로 과목을 삼아 수업을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라틴문법, 수사학, 변증학, 높은 수준의 산술학, 음악, 지리학, 그리고 천문학이 포함되었다. 이것을 이수하고 나면 신학, 법학, 그리고 의학 공부의 길이 열려 있었다. 여기서 그는 그의 라틴어 스승 마뉘레 코르드에를 만났다. 그로인해 칼빈은 우아한 라틴어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³³⁾

그러나 그의 아버지 제랄은 섬기던 상사인 감독과의 충돌 사건 이후 칼빈을 신부보다 법률가로 교육시키기를 결심하여 오르레앙 대학으로 전학시켰다. 칼빈의 천재성은 이미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문주의 학자들로부터 감화를 받으며 고전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1531년 아버지가 별세하자 칼빈은 다시 파리로 돌아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전공하였다. 이때 세네카의 관용론의 주해를 출판하여 그의 실력을 나타냈다. 23세의 약관으로 이렇게 고전 연구의 결정을 보인 것은 학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일이다.³⁴⁾

이렇게 칼빈이 계속 학구적인 열정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 종교 개혁 운동은 점점 확대되어 1529년 4월에는 슈파이엘 제국회의를 열어 로마 교회의 부당성을 설교하고 개혁과 제후와 결속하여 항의문을 제출하였다.

칼빈은 다시 1533년 10월 파리로 가게 되었고 그 해 11월 1일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 니콜라스 곱이 파리 대학의 학장 취임을 하게 되었고 취임 연설문을 칼빈에게 의뢰하였다. 이 때 곱의 취임사에서 우리의 주장과 같이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주시

33) 빌헬름 노이저, 「칼뱅」 김성봉 역 (성남: 도서출판 나눔과 섬김, 2000), pp.21-26.

34)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5), pp.278-279.

은혜라고 말했고 이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 대한 폭탄선언이었다.³⁵⁾ 이로써 칼빈의 종교 개혁은 시작되어졌다.

칼빈의 회심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나 언제 회심을 했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 칼빈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점차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음을 1557년에 쓴 시편 주석 서문에서 말한다. 그리고 칼빈 자신도 회심에 대하여 크게 평가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갑작스런 회심을 하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점차로 신앙을 얻는 일을 더 높이 평가한다.

1535년 칼빈은 개신교도에 대한 박해도 피하고 공부도 할 겸 프랑스를 떠나 바젤로 갔고 거기서 그는 여러 신학자들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불링어, 비레, 카피토, 부처 등 쟁쟁한 신학자들과 서신을 교환하였다. 칼빈은 바젤에서 교부들의 글을 탐독하며 히브리어를 공부하였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첫 판을 1535년에 탈고하여 이듬해 5월에 출판하였다. 그리고 바젤에서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프랑수아1세와 카를 5세가 전쟁을 하는 통에 길이 막혀 프랑스로 직행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칼빈은 제네바에 들러 프랑스로 가려고 그 곳을 방문하였다가 드디어 파렐을 만나게 되었다.

칼빈이 제네바로 왔을 때는 제네바 시가 교황주의를 제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파렐과 비레가 그곳의 교회 개혁을 주도하고 있었으나 제네바는 아직도 개혁적인 입장에 확고히 서지 못했으므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로마 카톨릭측이 다소 열세이기는 했으나 아직도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개혁 운동은 지연되고 있었고 누군가 개혁교회를 잘 조직하여 알차게 개혁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파렐은 칼빈이야말로 제네바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여겨 그에게 제네바에 머물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³⁶⁾ 칼빈의 첫 번째 소명은 이렇

35)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1), pp.13-14.

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칼빈은 곧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는 스트라스부르그로 갔고 거기서 그는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두 번째로 종교 개혁자를 쫓아냈던 당파가 그들의 과실로 인해 실각하고 무질서 속으로 떨어진 제네바는 다시 칼빈을 필요로 하고 1541년 9월 그를 불렀다. 이때가 칼빈의 두 번째 소명이었다.³⁷⁾

2. 칼빈의 교육 실제

칼빈은 주장보다 실천으로 루터와 맥을 같이 했다. 그는 시민들의 교육 향상을 위해 제네바에 청소년 교육기관을 세워 시민 양성에 힘써다.

그는 인문주의 교육방법을 채택하여 5-6세 어린이는 가정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고 7세 이후 어린이들은 주일학교와 요리 문답 학교에 다닐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년이 되면 직업적 훈련의 일환으로 예술과 문학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의 대작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하기를 고전적 교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지식보다는 열등하지만 멸시하거나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칼빈의 교육관은 그로 하여금 인문주의 교육 방법을 받아들인 최초의 신학자가 되게 했다. 그는 누구나 학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고 교회가 학문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학교육이 성직자들의 잘못으로 교회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칼빈의 교회 보호론은 공교육의 프로그램을 넓히는 초석으로 각광을 받았다. 칼빈의 공교육 프로그램은 교리와 지식에만 국한되어

36)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4), pp.418-420.

37) 에밀 두메르그,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pp.12-14.

있지 않고 도덕, 태도, 상식에 이르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그것들 전부가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사역자라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에 정통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적 자세가 확실해야 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앙적 밝은 태도와 도덕적 윤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교사와 설교자로서의 기능적 자질을 갖춘 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품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³⁸⁾

1) 교육과정

칼빈의 교육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하나님의 주권이 칼빈의 사상을 구성하는 형성원리라면 이에 근거한 커리큘럼은 내용중심적인 것도, 아동중심적인 것도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연구의 모든 영역에서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커리큘럼의 내용은 성서와 피조된 우주 이 두 가지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피조된 우주는 성서의 빛에 비추어야만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의 실제적인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계시가 된다. 커리큘럼은 통일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은 모든 진리가 자신을 이성적 존재로 계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옳다고 할 수 있다. 커리큘럼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이성적 탐구에 종속되어 있다. 칼빈이 행한 교육실천 속에서 사립학교를 위해 만들어진 커리큘럼은 주로 라틴어, 희랍어, 불어, 수사학, 논리학, 성서중에 선택된 몇 가지 책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제네바 아카데미의 대학부는 히브리어, 희랍어, 도덕철학, 물리학, 수사학, 성서 중 선택된 몇 가지 책들로 그 연구과정을 구성했다. 칼빈의 커리큘럼은 라틴어나 희랍어와 함께 모국어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수사학이나 신학 같은 과정은 학

38) 송정근, 「기독교 교육과 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5), pp.45-46

생이 교회와 시민 정부에서 책임 있는 일을 맡을 것을 전제하고 그러한 일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실천적이고 직업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제네바 아카데미가 이토록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강조했던 점은 당시의 대부분의 교육제도와는 판이하게 구분되는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칼빈이 지향했던 교육목적이 지닌 의미로부터 도출된 결과였다. 이 결과는 성서의 빛에 의해 해석되어진 인간의 축적된 문화 활동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커리큘럼 속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과목들의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커리큘럼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신/구약성서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어학이나 인문과학은 그 다음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배정은 신 중심철학을 기반으로 한 칼빈의 교육사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록 영을 보다 고상한 요소로 확신했지만 그러나 육도 존중하였다. 그러므로 건강과 신체교육이 커리큘럼 속에 비록 부수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만일 커리큘럼의 육체적 영역에 대한 신중한 배려는 인간의 삶의 청결이라는 성서적 개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개인의 소명의식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일은 칼빈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 점에서 직업교육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을 위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커리큘럼은 결코 정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성서의 빛에 따라 항상 새로운 자료의 총괄성을 향해 계속 열려져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³⁹⁾

2) 교육방법

칼빈이 강조한 교육의 방법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발견할 수 있다.

39)은길관, 「기독교 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4), pp.211-216

교육방법은 두 가지 인데 첫째는 교육 신학적 접근에 의한 방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즉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경과 자연의 계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의 사역 없이는 또 성경과 자연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없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인간의 소명과 예정의 사실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고 보았다.⁴⁰⁾ 둘째, 교육학적 접근에 의한 교육방법으로 주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실행되어진 방법들로서 강의, 연설이나 작문, 논문준비, 수사논쟁 등이 있으며 이것은 진리가 객관적이며 이성에 의해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칼빈의 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간의 방법이다. 이를 위한 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인격이라 보았고 교사자신의 인격의 자연적 표출이 곧 교육방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바른 교육을 위하여 신앙을 가져야 하고 자기부정, 기도, 묵상, 선행 등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⁴¹⁾고 보았다.

(가) 제네바 아카데미

초창기 칼빈은 제네바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는 성직자 층의 조력자들 부재와 대체적으로 교육의 초보적인 것들은 물론 기독교 사상도 모르는 일반대중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제네바의 학교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배움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 기독교 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다.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카데미에서 배워진 교육은 여러 면에서 인문주의적이었다. 칼빈은 성서를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로 생각하면서도 언어와 표현에 관해서는 권위자인 이교

40) 황성철,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육신학연구”, 「신학지남」 47권 2집, p.45

41) 김영규,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pp.59-60.

도 작가들을 끊임없이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교양과목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들이 중요한 목적들을 성취하는데 보조해 주는 도구들이다”라고 하였다. 지식과 학식은 칼빈에 따르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혹은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배워야 한다. 그러나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생각이 명확하고 똑바르고 기교나 틀에 박힌 표현 형식에 구애되지 않아야 한다. 칼빈 자신의 설교나 저술도 평범하고 직접적이며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은 자연, 교양 학문 또는 과학에서는 발견될 수 없고 오직 성서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칼빈은 기독교 교리를 아는 것이 효과적인 신앙과 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여겼고 그런 지식을 나누어 주는 데는 교육받은 성직자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깨달았다. 그 결과 플레쥬 드 라 리브가 설립되었고 날마다 강의해야 했다. 그러나 칼빈의 개혁은 1538년 제네바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다.⁴²⁾

원래 1536년 칼빈이 제네바에 오기 전 당시 학교 상황은 말이 아니었다. 13세기부터 몇 곳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거기에다 학교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마저 매우 빈약했다. 그러나 15세기에 들어와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칼빈이 주도하는 개혁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제네바 시민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학교를 새롭게 개교하는 데 모두 찬성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무료였으며 중세 삼학(문법, 논리학, 수사학)에 근거한 초등, 중등 교육이 제공되었다. 이 학교는 리브 중등학교라고 불렸다. 학교의 운영자금은 보잘것없었으며 교육 시설은 매우 열악했다. 거기다가 교장 역시

42) 엘머 L. 타운즈, 「인물 중심의 종교교육사」 임영금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pp.250-251.

유능한 인물이 아니었다. 공립학교로서 이 학교는 종교 개혁 이전에 변성했던 사립학교들과는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육활동을 시작했을 때 리브 중등학교는 그가 제안한 도시의 재조직에 일익을 담당하는 조직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1537년 1월 칼빈은 제네바의 교회 조직을 위한 규례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그 이듬해인 1538년에는 그의 옛 스승인 꼬르디에와 쏘니에르와 함께 이미 존재해 있던 패럴의 김나지움을 재조직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기상조였다. 결국 1538년 그는 제네바에서 추방당하여 스트라스부르그로 갔으며 그곳에서 프랑스 난민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시무하면서 존 스텐의 학교에서 가치 있는 교육 경험을 얻었다. 결국 제네바에서 실행에 옮겼던 교육 개혁은 실제로 이곳에서 3년의 과정을 걸쳐서 마련된 것이었다. 1541년 칼빈은 교육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제네바로 돌아옴으로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었다.⁴³⁾

“무지는 미신의 어머니이며, 문화는 종교와 자유의 시녀”라고 확신한 그는 제네바 시민을 개화시키고 교회를 갱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돌아오자마자 교육 개혁을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단행했다. 제네바의 초등학교의 수를 줄이고 교사들의 전문 능력을 시험하고 라틴어를 배우는 데 너무 어린아이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대신에 그런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번, ‘대학교’에 참석해서 ‘보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칼빈이 취했던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제네바 시 안에 학교를 집중시키는 듯이 보였다.⁴⁴⁾ 1559년 3월 16일 베자를 학교장으로 제네바 아카데미는 개원하였고 제네바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은 철저하게 인문주의에 기초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학문적 영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43)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pp.86-88.

44) Ibid. pp.88-90

광을 위해 섬기는 거룩한 전투에 부름을 받은 병사로서 훈련을 받았으며 참된 신앙과 모든 학문에 대한 지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네바 아카데미는 교육목적을 중심으로 두었으며 간략하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여기에서 교사는 성직자의 신분을 갖는 것은 아니었지만 목사회의 회원으로 참여하였고 또한 교회의 권징에 예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네바 아카데미는 교회의 통제아래 있었고 교수의 선정도 목사회의 재량에 있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당대 최고의 교사들을 섭외함으로써 외부의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Schola privata와 Schola Publica 두 학제를 가지고 있었고 학생 수는 1564년 베자의 자료를 보면 Schola privata에 1200명, 그리고 Schola Publica에 300명의 학생이 재학하였던 것으로 나타나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프랑스 출신이었고 그 외에 독일, 영국, 이태리, 스위스 그리고 북해 연안의 저지대 국가들로부터 온 학생들이었다.⁴⁵⁾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6,7세에서 16세 정도였으며 7급 학급으로 나뉘었고 철저한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진급시켰다. 7명의 담당 교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각 학급 안에 나이와 가정의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오직 학생들의 수학 능력에 따라 다시 10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고등학교는 안수 받은 목사와 제네바 시정의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커리큘럼은 예술과 신학, 히브리 문법, 도덕철학과 헬라시, 역사, 웅변, 물리학, 수학, 변증학, 수사학 등을 배웠다.⁴⁶⁾

이러한 칼빈이 추진하는 학교의 목적은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학교는 좁은 의미에서 교회적 목적에 봉사해야 했다. 교회와 학교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와 학교의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두 사회적 조직은 서로를 각각 존재하

45) 이환봉, “칼빈의 교육적 유산: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원리” 「고신신학」, p.216.

46) 장종철, 「기독교 교육 역사」 (서울: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p.302.

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상적으로는 서로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 자신의 재량권 안에서 독립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회와 학교는 칼빈에게 있어서 두 개의 중심을 이루는 개혁 작업의 축이었다. 교회는 시간적, 역사적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에 우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았다.⁴⁷⁾

교육 그 자체는 인문주의적이요, 그리스도교적이었으며 영속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삼국, 스코틀랜드 및 영국 등지에서 유학을 와서 그 학교에 출석했고 그들 나라에 돌아가 교회 개혁과 정치적 혁명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⁴⁸⁾

(나) 교회의 요리문답 교육

칼빈은 회심으로 개신교에 들어오면서부터 교육 목회에 참여하였다. 칼빈은 시편주해 서문에서 그의 회심에 관한 체험을 기록하였고 후에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기초교리를 해설하였다. 그는 모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서 요리문답교육을 가르치도록 하였다.⁴⁹⁾

청소년들은 젓을 먹어야 하는 자들로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삼각관계를 통하여 신앙의 가르침과 지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교회는 청소년 교육의 책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지식의 이해를 위해 교리적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교리교육을 시행하였는데 먼저 청소년들을 위해 조직적으로 정리된 형태로 시행하였던 요리문답을 교육을 살펴보면은 칼

47) Ibid. p.91

48) 프레드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p.229.

49) 장종철, 「기독교 교육 역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pp.302-303.

빈 이전의 요리문답교육은 본래 세례신청자를 위해 실시되었던 고대교회의 관습에 속하는 것이었다. 중세 초기에 이 전통이 사라져 버리고만 것은 성직자들의 태만과 무지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도권 교회가 종교교육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을 때 소위 분파적인 인사들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발도파, 보헤미야 형제단, 위클리프, 후스 등은 제각기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문서를 작성하였다. 16세기 종교개혁시대에 있어 교육은 종교개혁운동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교육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은 종교개혁이 자생하느냐의 문제였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루터였다. 그는 1529년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을 각각 출판하여 개신교 교회교육의 기초를 확립했다. 알사스 지방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요리문답은 부처와 첼의 것들이었다.⁵⁰⁾

칼빈은 1537년 신앙교육서를 만들었다. 그 이유는 평신도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짧고 간단하게 요약한 기독교 신앙교리서가 목회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기독교 강요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걸작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칼빈의 가르침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신앙교육서는 평신도와 어린이들에게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것도 아니었고 내용이 쉬운 것도 아니었다.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논쟁적인 언급은 회피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관한 긍정적인 교의를 제시하고 있다. 33장으로 되어 있는 신앙교육서는 교리의 일반적인 요지를 담고 있는데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며 열심을 다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다.⁵¹⁾ 이것이 제 1차 교리교육서였다.

50) 배성업, 「칼빈의 교육사상」, 석사논문 (서울: 연세대 교육대학원, 2003), p.69

51) 김득룡, “칼빈의 교육목회 연구”, 「신학지남 52권, 2집」, p.61.

제 2 차 교리교육서인 제네바 요리문답서는 칼빈이 제네바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목회 사역에 조력자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시민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역동적이고 열매가 있는 신앙과 삶을 위해 교리교육을 만들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는 어린이들을 위한 요리문답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작업을 착수했다. 1541년 이 요리문답서는 1537년의 신앙교육서를 확대보완하고 그 자료들을 문답식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주일 오후의 어린이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도록 작성한 것으로 55주 분량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강조하는 373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목표가 참된 교회교육에 관해서 칼빈이 목적했던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지식과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칼빈의 교육사역 안에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⁵²⁾

이 두 개의 요리문답교육을 통해 나타난 그의 사상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리문답교육은 교회의 회중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직무를 통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연합된 기능을 갖도록 한다. 둘째, 요리문답교육은 교회내의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유지해 가는데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과 회중들이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 대항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교리교육은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세례 받은 어린이들에게 세례식때 약속한 언약을 지켜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양육시키도록 한다. 결국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서 서문에서 신앙의 일치를 강조하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독교의 법규들을 지킴으로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논쟁 없이 동의하여 본받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52) 황성철, '칼빈의 문헌에 대한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신학지남, 62권 1집」, pp.133-138.

3. 칼빈의 교육 영향

칼빈이 교육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칼빈의 교육 사상은 교회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와 정치적 행정력을 동원하여 교육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교육의 과제들을 엄격하게 실천하였는데 첫째, 칼빈은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요리문답에 도움과 안내가 되도록 하였고 둘째, 칼빈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가 어린이 교육을 위해 만든 요리문답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기초가 되었다. 셋째로는 어린이 커리큘럼은 성서, 읽기, 쓰기, 문법, 수학 및 자국어 등이고 넷째로 칼빈은 성서가 모든 학습의 기초라고 믿었다. 다섯째, 유용한 인문주의 커리큘럼은 철저하게 종교교육과 결합시켜야 된다고 믿었다.⁵³⁾

이러한 칼빈의 교육적 공헌을 간략히 조망하여 본다면 결론적으로 첫째로 성경교육에 미친 공헌을 볼 수 있다. 칼빈의 신학적 배경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그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전의 가치와 일반적 지식의 효능에 대해서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칼빈은 그의 신학과 사상을 성경의 토대 위에서 전개하여 나간다.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기초도 성경이라고 보았다. 성경에 대한 그의 생각은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강해하였고 각종 주석들을 통하여 성경해석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에 와서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이 되며 아울러 기독교 교육에 성경이 바탕이 되며 성경이 교육의 바른 원리를 제시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인문주의 교육에 미친 공헌이다. 칼빈은 그의 초창기에 인문주의와의 만남을 통해 그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큰

53) 장종철, 「기독교 교육 역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p.304.

영향을 받았다. 그는 한 때 인문주의의 심취하였으나 여기에 결코 몰입되지 않고 이것을 초월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는 고전의 가치를 인정하였고 일반 지식의 효과를 간과하지 않았다. 이러한 칼빈의 경향은 그의 대표적 저작인 기독교 강요 1권 1장과 2장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칼빈은 그의 교육활동에서 생활훈련을 강조하였다. 경건훈련을 통하여 전인격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고 이러한 칼빈의 생활교육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까지 도달하게 하며 그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적 생활철학은 근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⁵⁴⁾

54) 김영규, 「기독교 교육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pp.74-76.

제 4 절. 루터와 칼빈의 교육 사상 비교

1.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

1) 루터의 교육 사상

루터의 인간 이해는 무엇보다 구원론적 입장에서 조명된 인간이해이다. 따라서 그의 인간이해에서 ‘칭의’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개념은 가장 핵심적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은 그의 인간이해에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의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루터는 교육을 일차적으로 인간의 책임과 과제로 보았고 따라서 교육은 구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차적인 것이다. 실제로 루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선한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루터는 교육이 바로 이 선한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흔히 표현하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보면 루터에게서 교육은 복음과 혼돈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복음이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면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에 관련되기 보다는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행위로 이웃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율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⁵⁵⁾

루터의 교육 목적은 인간의 영적이고 지적인 관심과 마찬가지로 삶의 현실의 연구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교육을 주장함으로써 루터는 전인적 인격발전에 모두 관심을 가진 인문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55)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기독교 교육 논총(1)/학술연구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pp.121-122.

그러나 그는 실천적 교육과 만인에 대한 교육을 주장함으로써 순수한 라틴어 사용과 심원한 지식의 발달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인문주의를 피하였다. 루터가 철저한 교육 개혁을 요구한 주요한 대상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점진적인 가르침이었다. 그의 신앙인의 기본적인 주장은 그의 모든 교육 이론 속에서 사실상 명백하거나 아니면 함축되어 있다.

초기에 루터는 하나님과 교회, 구가와 사회의 봉사를 위하여 백성들을 교육시킬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1520년대에 쓰여져 영향을 주었던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팜플렛의 주요 요지이다. 1519년 “결혼시기에 관한 설교”에서 그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어린이를 교육시켜야 할 의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그는 그의 여러 설교와 저술로 통해 교육을 강조하였고 정부에 대해서도 훌륭한 정부는 “주먹의 법”이 아니라 “두뇌의 법”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으며 선량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에게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혜나 이성에 의하여 통치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상의 법칙은 교육받은 법률학자나 학자들이 없이는 지속될 수 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인격발달이다. 젊은이들이 법을 무시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젊은이들의 윤리적인 기독교적 인품을 도야하기 위하여 먼저 이러한 완악함을 깨뜨리고 나서 널리 모범적인 예들을 들면서 그들의 내면에 행동지침과 안정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인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루터는 젊은이들이 가급적이면 문화와 폭넓게 접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즉 사람들이 성경 및 언어들은 물론 문학, 역사, 음악, 그리고 과학도 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문화가 목적은 아니며 문화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하였다. 문화적인 추구에 있어서 한 개인에게 역동적인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창조적인 힘으로서의

기독교적 믿음이다. 이러한 신성한 힘을 무시하는 모든 학교들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젊은이들이 신앙심이 깊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야 한다. 루터에 따르면 모든 선한 교육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도달해야 하며 다른 모든 혜택과 마찬가지로 배우는 것은 기도로써 개인이 감사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그저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⁵⁶⁾ 루터에게서 교육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교육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로 알고 성실히 수행하는 하나님께로의 봉사가 바르게 일어나도록 돕는 기능적인 차원의 것이지 교육을 통해 인간이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면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교육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터에게서 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위하심에 의존된 그리고 그에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이다.⁵⁷⁾

결국 루터의 교육사상은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국가,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자를 양성하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개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른 기독교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생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을 강조하였고 이것은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의 교육사상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의 ‘전 영역’에 적용시키는 삶의 기초를 제공하였고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요람에서부터의 교육을 주장하였다.⁵⁸⁾

56) 엘머 L. 타운즈, 「인물 중심의 종교교육사」 임영금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pp.157-163.

57) 오인탁, “루터”, 「기독교 교육사」 오인탁 외 (서울: 교육목회, 1989), p.164.

2) 칼빈의 교육 사상

칼빈의 교육 사상의 근본은 인간성에 관한 견해인데 그는 인간은 철저히 타락하여 어떤 선행이나 선한 생각도 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인간은 속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았다. 인간 자신의 본성 속죄의 파멸로부터 피하기 위해 주로 면밀히 훈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도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고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거듭나는 것인데 이것에 의해서 성서 속의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만져 주실 때까지는 최고의 지식도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인간은 영원히 보이지 않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참된 지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구약성서는 그 학원의 왕관이자 법령이었다.

칼빈의 교육 목적은 누구보다도 간결하고 확고하다. 그렇기에 칼빈은 그 목적에 의해 교육을 추구했고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의 교육 목적은 제네바의 교회 요리 문답의 초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목적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초청받고 있으며 또한 이 지식의 결과로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이끌림 받고 있다고 보았다.⁵⁸⁾ 더 나아가 이 지식은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삶을 수반한 지식이다. 칼빈은 경건이 없는 경우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

58) 김영규저,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p.57

59) John Calvin,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Theological Treatises(1545)pp.91-92을 배성업, 「칼빈의 교육사상」, 석사논문 (서울: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2003), pp. 19-20 재인용.

였다.

한철하는 칼빈에 있어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동반한 경외 즉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생활의 신학이고 생활을 위한 신학이라고 보았다.⁶⁰⁾ 그러기에 칼빈은 인간을 바른 기독교인의 생활로 이끌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삼았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도록 준비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었다.⁶¹⁾

궁극적인 실재는 만물을 주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분은 자기충족적인 분으로서 창조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시다. 칼빈에 의하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고 이미 예정된 하나의 조화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어떠한 진리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직무는 지상에 명령 지워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칼빈이 교사의 직무를 교회의 사역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네 가지 직무중의 하나로 간주했었다는 점에서 교사의 위치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칼빈은 말하기를 “성공적인 목회와 교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밀접히 연관된 질서는 신학을 가르치는 이의 질서이다. 우리는 신학을 가르치는 이 직무 속에 신/구약 성서에 대해 가르치는 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여러 종류의 언어와 다양한 인간성을 전제하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이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교회가 새로운 세대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직접 봉사하는 일 뿐 아니라 건전한 시민 정부를 위해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민들

60) 한철하,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경건”,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 이종성편, (1965), p.72

61) 강용원,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⁶²⁾라고 했다.

칼빈은 또한 학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 먼저 인식하였다. 곧 이 말은 학생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본래는 거룩함과 지혜와 의를 지니고 있었고 죽지 않을 가능성과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을 받는 가치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죄로부터의 심각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지적인 면이 약화되고 도덕성이 타락했으며 정서적으로 왜곡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은 타인으로부터 강요될 수 없기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교과서에 정신을 집중시키거나 교실 수업에 조심스럽게 주목하고 반별토론에 신중하게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대해 책임이 교사나 부모, 학교, 사회 등에 의해 주어진다면 배우는 학생 역시 교육과정 속에 자신을 참여시켜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칼빈이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이 져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의 학문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그가 제정한 규칙들에 나타난다. 그 외에도 제네바 아카데미의 학장이나 교수들이 취임할 때 하는 선서의 내용을 볼 때 종교교육뿐 아니라 세속적인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칼빈은 교육이 하나의 온전한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들 존재의 깊은 곳에서 자신의 삶의 총체성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도까지 성숙하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칼빈의 교육은 무척이나 총괄적인 것이고 이것은 삶의 전 차원을 의미하는 세 가지 시제로 확장되어질 때 매우 중요하게 된다.

62) John Calvin, Ecclesiastical Ordinances of 1541, trans. by G. A. Taylor(Durham: Duke University, 1953). pp.14-15을 은길관, 「기독교 교육사」, (서울:도서출판 교육목회, 1994), p.198.에서 재인용

즉 과거에는 문화유산으로 현재에는 오늘날의 필요와 요구로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소명으로 주신 직업에 대한 준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총괄성은 학생들의 영적, 지적, 육체적, 문화적, 직업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영적인 삶은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의 의식을 가지고 봉헌할 수 있도록 양육하여 이 봉헌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개발되어지는 것이다.⁶³⁾

2. 루터와 칼빈의 교육 사상 비교

1) 교육 목적

(가) 루터

중세기 및 루터시대의 교육의 맹점은 서민 계급을 위한 교육은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 교회학교는 주로 사제직의 지원자들을 위해 교구학교는 청년들의 교회원이 되기 위해, 공민학교는 제도시의 상인과 장인계급의 양성을 위해, 기사교육은 기사단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때 루터는 종교 개혁가로서만이 아니라, 교육 사상가요, 교육 개혁가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루터는 중세 수도원 학교나 교회학교에서 실시되던 지적 혹은 도덕적인 측면의 교육⁶⁴⁾에서 탈피하여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는 획기적인 교육을 주장했다. 루터의 교육은 그 목적으로나 형태로나 또는 그 내용으로 볼 때 한결같이 종교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이며 곧 하나님과 인간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했다.⁶⁵⁾

63) 은길관 저, 「기독교 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4), pp.196-211.

64)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 사상」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3), p.48.

65) 지원용, 「말틴 루터」 (서울: 권콜디아사, 1980), p.35

그는 교육을 사회와 국가를 위한 부와 힘과 번영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66) 루터의 목적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며,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다.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에 대하여 봉사하는 생활, 즉 하나님과 영광과 인간을 위한 사랑에 적합하도록 행하는 것이다.

루터 교육의 첫째 목적은 충실한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있었다.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만 영원한 가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둘째 목적은 교회와 국가, 그리고 사회에 공헌할 유능한 봉사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또한 성직자와 관리를 훌륭하게 양육하는 데 두었다. 셋째 목적은 인격도야를 매우 중요한 목적으로 하였다. 인격도야 교육은 청소년기에 시켜야 하고, 청소년은 교회와 국가의 씨앗이요, 자본이라고 하였다. 넷째 목적은 전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교양과목을 습득토록 하였다.67)

루터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한편으로는 종교 교육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교육을 의미한다. 자녀들을 크리스천 신사, 숙녀로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루터의 교육 목적이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 교육을 통해 학생이 하나님과 이웃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지도하였다.

(나) 칼빈

칼빈의 교육은 누구보다도 간결하고 확고하다. 칼빈은 종교 교육 뿐 아니라 세속적인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의 교육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66) 조일구, 「루터의 교육사상연구」 석사논문 (고신대학교신학대학원, 1987), p.25

67) 김호현, 「마틴 루터의 교육사상연구」, 석사논문 (동국대학교, 1986), p.24.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도록 준비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었다.⁶⁸⁾

루터의 신인식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고 인식이 있으므로 교육이 가능하고 교정도 가능함을 말하고 있으며, 칼빈에게 교육은 결코 지식이나 학문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앙자의 형성을 말한다고 보았다. 그는 교육을 통해 인간의 이성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의 활동도 요구하여 종합적으로 지정을 총발휘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칼빈의 교육목적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이 교육사상의 기초이다. 인간의 교육과 생활, 삶의 유일한 목적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타락과 죄악된 인간이 올바르게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신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인간의 회복된 생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다. 신의 창조질서를 바르게 아는 생활이 교육이어야 한다. 넷째, 교육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 중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도표1. 루터와 칼빈의 교육 목적 비교]

비교 인물	루 터	칼 빈
차이점	하나님께 영광과 국가에 대한 의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혁신학의 전수와 보존
공통점	종교적이며 경건한 신앙인 양성	

68) 강용원,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p.32.

2) 교육 내용

(가) 루터

루터의 교육은 신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결과적으로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의 신학을 전 사상의 기초라고 한다면 그의 교육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과도 같다는 것이다.⁶⁹⁾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성서, 고전어, 역사, 그리고 교양과목 등을 강조하였다. 루터가 말하는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경을 통한 교육이다. 루터는 성서가 으뜸과목이 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매일 한 시간씩 독 일어나 라틴어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들이 자국어로 글을 배워 성서를 읽게 하는 일이야말로 프로테스탄트 학교 교육의 기본 내용이 된 것이다.⁷⁰⁾

그리하여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됨을 강조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성경을 읽도록 한 공헌은 문화 형성 및 종교개혁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요리문답서를 통한 교육이다. 그의 소요리문답서는 아이들과 평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기독교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평범한 언어로 표현되어 이해하기 쉬우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깊은 신학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전 성서의 개요가 포함되어 있다.⁷¹⁾ 셋째로 음악을 통한 교육이다. 루터는 성경 다음으로 음악을 교육 내용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음악이 인간적인 정서의 안내자와 지배자로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할 유일한 주제라고 말했다 또한 음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은사라고 보았다.⁷²⁾ 음악은 본

69) 김명일, 「마틴 루터의 교육사상연구」 석사논문 (충신대학교신학대학원, 1985), p.29

70) 지원용, 「루터의 사상」 (서울: 컨콜디아사, 1991), p.145.

71) Ibid., pp. 226-227

72) 김명일, 「마틴 루터의 교육사상연구」 석사논문 (충신대학교신학대학원,

래 거룩하고 신적인 일을 위하여 채택되었고 사용되어 왔다. 음악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둘이 같이 병행하는데 이것을 시편과 구약 문학 가운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고찰해 볼 때 루터가 교육내용으로 음악을 강조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루터는 역사과목에 관심을 보였다. 역사연구야말로 그 당시 유행하던 교권제도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무기라고 보았으며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는 매우 높다고 하였다.⁷³⁾ 그 외 교양과목들의 강조는 중세 대학 교육에서 실시되어 오던 것을 재삼 강조한 것이다.

(나) 칼빈

칼빈은 하나님 중심의 우주관에 기초하여 모든 교과과정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교육에 있어서 그 중심은 학생도 교사도 아닌 하나님이다. 그의 교육은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칼빈이 서술한 Paedagogia Dei(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맞추어 조절하신다는 Accommodatio Dei(눈높이 교육)의 개념이다.⁷⁴⁾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하실 때 인간의 상태 따라서 그리고 그의 이해 능력에 따라서 그에 맞는 내용으로 교육하신다는 말이다.

칼빈의 교육내용은 첫째로 성경이다. 칼빈은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내용 즉 교육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경에 기초할 뿐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 중심의 교육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흔들려서는 안되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1985), pp.35-36.

73) Ibid., p.197

74) 양금희, 「종교 개혁의 교육사상」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9), p.113.

직접 이해시킨다는 것이다. 이 교육내용은 반드시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학생들에게 이해 가능한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이론을 다 합친 것보다도 성령의 증언이 훨씬 더 훌륭하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를 더 잘 일깨우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 시켰으며 또한 우리에게 그의 형상을 심어놓아 우리로 하여금 그 형상에 화합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또한 성경은 우리 삶의 주인이요 소유주인 하나님을 좇아서 삶을 이끌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참된 근원과 처음 창조된 때의 상태에서 타락했다고 가르치며 이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그리스도가 몸소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 결국 칼빈은 교육내용의 폭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게 하며 교육의 터전이 삶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데까지 넓힌다. 정리하자면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교육내용을 학습할 학습목표는 성경언어의 이해능력 향상과 더불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 가령,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더 이상은 묻지 않는 이성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생활 개혁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⁵⁾ 둘째로 교육 내용은 교리이다. 교리 교육은 특히 기독교 신앙의 초신자와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입교를 위한 준비교육으로 특정 지워졌다. 칼빈에 따르면 교리교육은 히브리서 5장 11절과 6장 1절에 근거하여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되다. 첫째는 신

75) 이상오,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사상비교」 석사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4), pp.30-32.

양의 초보단계이며, 둘째는 신앙의 진보단계이다. 칼빈은 신앙이 초보단계에서 진보단계 즉 성숙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았으며 신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은 훈계와 각성을 통한 인간의 의지 확립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칼빈의 교리교육의 목표를 그가 만든 첫 번째 신앙교육서에서 인용한 성경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의 교리교육은 교회 교육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교회의 학습자교육과 입교자 교육, 그리고 가정 중심의 교육과의 관계에서 교육 목회가 실행되어진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 교육은 하늘의 교리를 설교하는 일이다.⁷⁶⁾

이제 교리의 교육적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칼빈의 견해에서 본 교리는 가르쳐 질 수 있는 교수학적 기능을 가진 것이다. 설교와 교리 교육은 교육목회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둘째로 교리는 칼빈에게 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 또는 기독교적인 삶의 올바른 스타일 형성에 대한 가르침이다. 교리는 믿음과 생명 그리고 신앙과 삶의 관계 속에서 항상 가르치는 능력을 갖는다. 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실한 삶의 형성에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고 볼 수 있다⁷⁷⁾. 셋째, 칼빈은 그의 설교와 성경주해서에서 학식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즉 배워서 얻게 된 지식이나 그 지식의 정도로는 교육의 상태와 진전 또는 진보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칼빈은 광의적 의미로 교리교육, 좀 더 협의적인 의미로는 요리문답교육을 교회교육의 중심 속에 중요한 교육적 내용으로서 그 중심을 삼고 있다.

76) 정일웅, “KATECHISMUS 교육에 대한 연구(1)”, 「신학지남」 51권 4집, 1984), pp.64-65.

77) Ibid., p.65

[도표 2. 루터와 칼빈의 교육내용비교]

인물 항목	루터	칼빈
교재	요리문답서	기독교 강요, 요리문답서
공통점	성경의 중요성을 똑같이 강조하였다. 올바른 성경의 이해를 위해 어학을 비롯한 폭넓은 학문과 접촉하도록 하였다.	

3) 교육 방법

(가) 루터

루터의 교육방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주입식 교육방법과 암기와 암송을 강조하는 엄격한 훈육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훈육에 있어서도 개인의 성격이나 처지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엄격하여 오히려 학습 자체를 싫어하는 반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루터의 교육 방법은 매우 혁신적이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교육자의 자세 그리고 교수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환경에 대해서 엄격한 체벌과 훈련을 배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쁘고 유쾌하게 학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교사의 자세는 군주나 주인이 아닌 학생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수준에 맞게 가르치도록 권했다.⁷⁸⁾ 루터는 첫째로 학습목표의 확실성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맞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고 학습의 통일성과 단순성과 반복을 주장하였다. 둘째로 수업의 종결을 잘 맺기 위하여 각 단원과 목표를 총괄적으로 상세히 설명할 것과 능력별 및 대상별로 적절히 가르칠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아동들의 지능개발을 위하여 질문을 강조하였다. 아동들로 하여금 단순히 암기하거나 반복만 시키지 말고 한

78) 지원용편역, 「루터선집」 (서울: 컨콜디아사, 1983), p.116.

문제씩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⁹⁾ 넷째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교수하도록 하였다. 루터의 교육 방법은 당시의 권위주의적인 교수 중심의 학습법에서 학생 중심의 교수법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루터는 학생들의 교리문답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를 바르게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루터는 기존의 수업 방법인 읽어주기와 외우기에 이어서 세 번째 단계인 설명해기의 과정을 첨가하였다.⁸⁰⁾ 그리고 특히 이 단계에서 특별히 질문과 대답의 형태가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나) 칼빈

칼빈의 교육방법은 앞서 나왔듯이 교육 신학적 접근과 더불어 교육학적 접근에 의해 발견될 수 있다. 먼저 교육 신학적 접근에 의한 칼빈의 교육방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인도하시는 교육방법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없이는 또 성경과 자연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인간의 소망과 예정의 사실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⁸¹⁾ 그리고 교육학적 접근에 의한 교육방법은 주로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에서 칼빈의 대표적인 교육방법과 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실행되어진 방법들로서 강의, 연설이나 작문, 논문 준비, 수논쟁 등이 있으며 이것은 진리가 객관적이며 이것이 이성에 의해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칼빈의 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그 당시의 주입식, 단계식 교육을 그대로 실시하였고 특히 그는 단계식 교육 방법을 많이 권장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교육

79) Ibid., p.153

80) 양금희, 「종교 개혁의 교육사상」,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9), pp.152-153

81) 황성철,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육신학연구”, 「신학지남」 47권 2집, 1995), p.45

방법은 제네바 아카데미의 운영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제네바 아카데미는 학생들의 진급을 종합 성적의 평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학년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칼빈의 교육방법은 요리문답에 의한 문답식 교육법이다. 칼빈의 문답식 교육은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실제로 시편을 노래 부를 것과 주기도문과 신앙고백, 십계명을 불어로 암송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연설이나 작문과 논문을 준비해야 하며 자신과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칼빈의 확신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은 이성적, 도덕적, 영적 존재로서 교육의 자료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스스로 그것에 참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관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칼빈은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아주 중시하였다. 칼빈은 학생들에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방법들의 가능성을 온전히 탐구하는 데 무척이나 열성적이다. 그러나 칼빈의 교육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교육의 방법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고 성경의 조명 아래 평가받고 재해석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⁸²⁾

[도표 3. 루터와 칼빈의 교육방법 비교]

인물 항목	루터	칼빈
차이점	주입식 교육 암기와 암송의 교육 종교적 지향 교육	하나님 중심의 교육 독트리나 수업 교육 교과과정 7개 교육 학년제에 의한 교육
공통점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 권위주의적인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의 수업 방법으로의 전환	

82) 이상오,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사상비교」 석사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4), pp.47-51.

4) 교육 실천

(가) 루터

첫째로 루터의 일반교육에서의 교육 실천은 가정이다. 루터는 가정교육을 모든 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사회와 국가의 복지를 이룩하고 또한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루터 자신은 명백히 알고 있었다. 가정교육의 암흑기이기도 한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으로 가정의 위치가 상승하였고 특히 루터의 하나님 말씀을 통한 강조로 인해 가정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로 대두되었다. 자녀들을 위한 가정교육은 부모들의 책임이며 학교나 교사를 이용하는 것은 다만 보충적인 일에 불과하다 가정은 어떤 의미로 보아 교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교육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교육의 방종을 초래하는 부모의 지나친 사랑은 경계하며 엄격함과 부드러움이 균형 있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루터의 일반교육에서의 실천은 학교이다. 루터는 근대적 의미의 학교설립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의무교육을 주장했고 정부 후원의 공교육 실시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루터는 학교의 도움이 없는 가정교육의 한계성을 말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기관인 학교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학교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해 정부와 책임자들이 힘쓸 사명이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루터는 국가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는 유능한 봉사자를 양육하여 국가와 교회에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말했다. 셋째로 루터의 일반교육에서의 실천은 윤리교육이다. 루터는 윤리적 덕의 발전이 잇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의지를 부수는 일과 자아보다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였다. 넷째로 루터의 일반교육에서의 실천은 직업을 위한 준비교육이다. 루터에 의해서 크게 변화되어진 것은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다. 노동의 개념을 소명의 개념으로 바꾼 것이 루터의 큰 공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경번역을 통해 모든

사람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렸을 적부터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성서 연구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언어 연구를 장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루터의 종교교육에서의 실천은 교회이다. 루터는 교회 교육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며 교인들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사랑의 봉사가 필요하고 서로 진실된 형제애를 나누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적인 교인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꼭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따라서 루터는 참된 교회는 말씀에 달려 있고 말씀의 교육적인 실천을 위한 바른 가르침을 강조하였다.⁸³⁾

(나) 칼빈

칼빈은 비록 평생을 교육자로서의 실천적 삶을 살아왔지만 교육학자들처럼 교육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교육학자나 교육사상가는 아니었다. 칼빈은 오히려 자신의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한 교육 실천가였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이것을 실천하는데 노력한 신학자였으며, 그는 대중교육의 선구자로서 일반학교 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였다. 첫째로 칼빈은 일반교육에서의 교육실천은 학교를 통한 교육활동이다. 칼빈의 교육활동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이다.⁸⁴⁾

칼빈은 학교 설립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개념의 관심을 가졌다. 먼저, 공립학교를 위한 문서로 칼빈은 공립학교 설립을 위한 문서를 1538년 발표했다. 그는 이 문서에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토대가 되며 인문학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둘째로 제네바의 학교는 성직자 교육만이 아니라 시민교육에도 필요하다

83) 김명일, 「마틴 루터의 교육사상연구」 석사논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1985), pp.52-53.

84) Ibid., pp.55-56

고 하였다. 즉 성경과 인문교육 그리고 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일반교육의 실천으로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유럽 각지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개혁신앙을 각지에 전파하는 역할과 지도자 양성의 온상이 되었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보면 주로 라틴어, 희랍어, 문학, 논리학 수사학 등을 예과에서 교육하였고 본과에서는 철학, 히브리어, 예술 등을 첨가하였다. 이 교육에서 칼뱅은 인문교육을 강조한 것이 특생이며 또한 처음부터 국제성을 띠는 것이 특색이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목적 지향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시대의 관행을 깨는 혁신적인 인사 조치를 통하여 경건하고 유능한 교수들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⁸⁵⁾

기독교적으로 또한 칼빈은 교육의 효과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출석, 근면, 순종의 세 가지 중요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칼빈의 모든 활동은 교육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회, 저술, 그리고 학교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칼빈의 종교교육에서의 실천은 목회를 통한 교육활동이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개혁활동을 전개하면서 제네바 시민들에게 개혁의 원리를 주입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서 교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들은 칼빈의 목회활동의 일환이다. 칼빈은 무질서한 제네바의 개혁 운동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회 헌법을 법제화하였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교사를 교회의 직분에 포함하였다. 여기에서 교사란 학교에서의 직분을 의미하는데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함께 목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교회법에 순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자녀들에게 요리문답을 교육하여야 할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

85) Ibid., pp.56-57. 재인용

다. 또한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신앙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서 정치적 통일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어린이들도 교회의 동등한 회원으로서 교육되어야 함으로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칼빈의 종교교육에서의 실천은 저작을 통한 교육활동인데 그의 저작활동은 매우 심오하고 광범위하다. 그 중 하나가 기독교 강요이고 다른 하나는 요리문답이다. 칼빈은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자녀교육과 부모의 책임을 위한 항목들을 기록하여 교회의 질서와 신앙질서를 통해서 성경과 생활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⁸⁶⁾

[도표 4. 루터와 칼빈의 교육실천 비교]

인물 항목	루 터	칼 빈
차이점	가정과 학교를 통한 교육 윤리교육과 직업을 위한 교육	학교설립과 각종문서와 저술을 통한 교육 목회를 통한 교육
공통점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구분하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통합과 접목을 시도하였다.	

86) Ibid., pp.60-63

제 3 장. 결 론

결론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루터와 칼빈의 교육 사상을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교회 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려 한다.

지금까지 루터와 칼빈의 교육 사상을 정리해 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진 성경 교육이었다. 오직 말씀에 돌아가 먼저 그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하기에 중세시대에는 교회 지도자들만 보았던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고 요리문답서를 비롯한 각종 서적을 통해 알지 못하기에 멀리 하던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이 요리문답교육은 초대 교회부터 있어왔지만 루터와 칼빈에 의해 더 견고한 형태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또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교육이었다. 단순한 종교 교육을 국민 교육의 형태로 넓게 실시하였고 교회안의 종교 교육으로가 아니라 삶의 전영역,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도록 교육시켰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은 교육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개인의 지성발달은 물론, 사회에 기여함과 도덕심의 함양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성경의 가치를 교회생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의 신앙과 생활의 원리로 파급하였다. 또한 루터와 칼빈은 교육의 기초를 성경에 두면서 보다 넓은 범위의 교육과정을 강조한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교회교육이 아닌 여러 분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을 보며 오늘날의 기독교 교육을 돌아본다.

첫째로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러

면서도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았다. 오늘날도 먼저 귀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잘 알도록 가르칠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가장 기본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철저히 가장 기본적인 성경으로 먼저 돌아가야 한다. 영어나 수학이나 세상 지식은 정말 밤새도록 외우도록 권장하듯이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뒤져서는 안 된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삶으로의 변화로 이끌려면 학습자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루터나 칼빈도 단계별로 눈높이 교육을 고민하며 생각하였듯이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귀하게 얻은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잘 먹이도록 대상을 잘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로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책무를 학교에만, 교회에만 전가할 때가 많다. 특히 한국 교회는 영적성장을 위해 어른들을 위해서는 새벽기도도 수요예배도 성경공부도 있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일주일의 한 번 예배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교육은 일평생 하는 것이지만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육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임을 재인식시켜 주어 학교나 교회는 그의 보충적인 역할임을 알게 해야 한다.

넷째로 오늘날 교회 교육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루터와 칼빈은 무엇보다 교육의 장을 교회 안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됨으로써 교회와 삶의 구체적 영역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됨을 주장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육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안 것에 대해 행해 볼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져 작은 것부터 응답과 간증의 체험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항상 시대마다 고민하는 고민은 달라 보여도 근본적으로는 유사한 면을 보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힘과 지혜로 다시 한 번 우리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루터와 칼빈처럼 세상이 썩었다 탓하기 전에 우리가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어야 함을 먼저 인식해야 다시 한 번 살아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한국 교회가 되리라 소망하며 이 논문을 마무리합니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4.
-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1.
- 김영규, 「기독교 교육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 _____,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 송정근, 「기독교 교육과 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양금희, 「종교 개혁의 교육사상」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9.
- 오인탁, 「한국 교회 100년의 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교육협회, 1991.
- _____, 「루터」 서울: 기독교교육사 교육목회, 1989.
-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이장직 외 10,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 은길관, 「기독교 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4.
- 장종철, 「기독교 교육 역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 사상」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3.
- 지원용, 「말틴 루터」 서울: 컨콜디아사, 1980.
- _____, 「루터의 사상」 서울: 컨콜디아사, 1991.
- _____, 「루터선집」 서울: 컨콜디아사, 1983.
-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2. 번역서적

- 빌헬름 노이저, 「칼뱅」 김성봉 역, 성남: 도서출판 나눔과 섬김, 2000.
- 케니스 O. 갠글/워렌 S. 벤슨, 「기독교 교육사」 유재덕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2.

- 쿠르트 알란트, “마틴 루터의 생애와 사상”, 휴 T. 커어 편저, 김영한 편역,
「루터신학 개요」
- 엘머 L. 타운즈, 「인물 중심의 종교교육사」, 임영금 역, 서울: 대한예수
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 에밀 두메르그,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Justo L. C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3. 기독교 사상사(III),
이형기, 차종순 역(예장총회 출판국)

3. 논문 및 학술지

- 강용원,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
대학교 대학원, 1978.
- 김명일, 「마틴 루터의 교육 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85.
- 김득룡, 「칼빈의 교육목회 연구」 신학지남 52권, 2집
- 김호현, 「마틴 루터의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86.
- 배성업, 「칼빈의 교육사상」 석사논문: 연세대 교육대학원, 2003.
- 이환봉, 「칼빈의 교육적 유산: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원리」, 고신신학
- 이상오,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의 사상비교」 석사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4.
- 정일웅, 「KATECHISMUS 교육에 대한 연구(1)」 신학지남, 51권 4집, 1984.
- 조일구, 「루터의 교육 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87.
- 한철하,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경건」,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 이종성편,
1965.
- 황성철, 「칼빈의 문헌에 대한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신학지남, 62권 1집
-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기독교 교육 논총(1)/학술연구지」 서울: 한국장로교출
판사, 1999.